

티라노사우루스는 짧은 앞다리를 어디에 썼을까?

공룡열전

박진영 지음

지난 2000년 보성 비봉리에서 동물 뼈로 보이는 화석이 발견됐다.

당시 고생물학자문단(PCP)의 박진영 연구원과 전남대 허민 교수, 영국 런던대 수잔 에반스 교수 공동연구팀이 발견한 이 화석은 최근 몸집이 2m 이상의 거대한 도마뱀 화석으로 밝혀졌다.

발견된 한반도 거대 도마뱀 화석은 왼쪽 두개골 일부와 어깨, 손뼈 등 10개의 파편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이 도마뱀의 학명은 비봉리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아스프로사우루스 비봉리엔시스'라(Asprosaurus bibongriensis)다.

전남대 대학원을 나온 젊은 고생물학자



이자 과학책 저술가인 박진영씨가 신간 '공룡열전'을 통해 공룡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구아노돈, 데이노니쿠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6종류의 공룡을 각각의 장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구에 출현했다 사라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소개하는 일부 비 전문가의 책이나 자신의 논거를 피력하는데만 치중한 일부 연구자들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공룡 연구 결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각종 사진과 그림은 이해를 높이며서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또 저자는 재미있는 질문을 던진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쿡구멍도 후발 수 없는 짧은 앞다리를 어디에 사용했을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어쩌다가 세상에서 가장 긴 18m짜리 신경세포를 갖게 되었을까. 외계종족의 장갑 같은 이구아노돈의 손은 얼마나 쓸모 있었을까.

데이노니쿠스는 섬뜩한 갈고리 발톱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스테고사우루스의 살집이 두툼한 엉덩이 속 공간에는 '두 번째 뇌' 말고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이처럼 공룡의 특징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룡 멸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 공룡 연구 과정의 수많은 가설과 논쟁도 빼놓지 않았다.

20여년 넘게 이어온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체정소부'설과 '난폭한 사냥꾼'설 논쟁. 트리케라톱스의 화려한 뿔로 살펴보는 '상호 성선택설', 새와 해부학적으로 너무나 닮은 데이노니쿠스로 인해 등장한 '공룡-새 기원설' 등 뜨거운 논쟁이 책을 장식한다.

공룡의 진화 이야기도 흥미롭다. 가령, 해수면이 오르내리라는 통에 작은 섬에 갇힌 공룡은 먹이가 적어 큰 위기에 빠진다. 몸집이 큰 동물이 작은 섬에 고립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몸집이 큰 공룡은 섬에 갇히면 몸집이 작아지는 쪽으로 진화한다.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조상 중 하나는 유럽으로 건너가다 작은 섬에 고립돼 몸집이 시내버스 네 대만 한 크기에서 마늘버스 한 대만 한 크기로 줄었다.

〈뿌리와이파리·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룡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다. 사진은 영화 '쥬라기 월드'의 한 장면.

나는 내 삶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다양한 분야 인문학 지성 9인의 해법

생각 수업

박용현의 8인 공저

"원하는 일이 꼭 직업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독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너무 빨리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우주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러분들의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너무 직업과 꿈을 연관 지으려 하지 마세요." (박용현)

인문학 열풍이 거세다. 지금 바로 눈이 뜨지는 않아도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순수한 '알',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비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짚어볼 수 있는 '고민의 자리'에 대한 갈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생각 수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 욕구를 정확히 겨냥한 책이다. 이 책은 알은 지식을 줄줄이 나열하거나 뜬구름 잡는 생각거리만 무심하게 던지지 않는다. 대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박용현, 진중권, 고미숙, 장



대익, 장하성, 데니스홍, 조한혜정, 이명연, 안병욱 등 9명이 모여 지적 사유의 장을 마련한다.

이들은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만나는 것'이란 전제 아래 독자들 스스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른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한다. 특히 그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겉치만 각 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서로 다른 9권의 책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각기 다른 분야의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9명의 지성들이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완결성이 높고 메시지가 주는 목적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알기·1만5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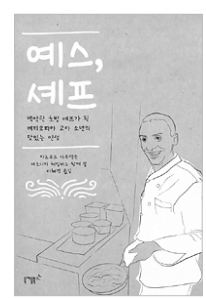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셜록 홈즈 : 모리어티의 죽음=아서 코난 도입 재단에서 공식 출간하는 새로운 셜록 홈즈. 홈즈와 속죄 모리어티 교수의 맞대결을 그린 유명한 단편인 '마지막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뤘다. 재단의 공식 인정을 받은 작가 앤디 호르비츠는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해 라이언바흐 폭포 사건 직후의 런던을 금급해했던 기존 홈즈 팬들의 갈망을 충족시킬 야심찬 탐정 소설을 완성했다. 〈황금가지·1만3800원〉

▲보노보노의 두근두근 캠핑요리=캠핑요리 전문가 '보노보노' 윤은숙이 제안하는 상황별 맞춤 레시피, 연인과의 데이트 캠핑에서도, 지인들과의 그룹 캠핑에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캠핑에서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미니멀 캠핑족에게도 안심맞춤인 간편하고도 빠른 123가지 요리와 캠핑을 위한 개달 같은 노하우, 근사한 캠핑화보 등 눈도 입도

어린이 책

▲시리우스에서 온 아이=매일 밤 꿈속에서 그림자 괴물에게 쫓기는 아이 시훈이 앞에 노란 우비를 입은 외계인 소년 시몬이 나타났다. 겁쟁이 소년 시훈과 시몬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공유하며 친구가 된다. 두 소년이 이겨내야 하는 것은 그림자 괴물도, 우주 약당도 아닌 상처 받은 '나'였음을 깨닫게 해준다.



즐거운 요리책으로 언제 어디서나 돌보는 캠핑 상차림을 만날 수 있다.

〈보릿밭·1만8000원〉

▲에스, 세프=백악관 초빙 셰프가 된 에티오피아 고아 소년의 맛있는 인생. '요리계의 오바마'라고도 불리는 마르쿠스 사무엘슨은 흑인 최조로 스타 셰프가 된 사람이다.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백악관 초빙 셰프가 되어 국민 만찬을 주관했으며, 마침내 레스토랑 업계의 불모지인 할렘에 개성적인 식당을 연다. 책은 톱 셰프 마르쿠스의 자전 에세이이면서, 삶의 고비마다 그가 만들어온 요리이

이야기이기도 하다. 〈니케북스·1만4800원〉

▲인생, 한 곡=폭주 기관차처럼 정신 없이 달리는 문득 삶의 반환점에 닿아 허망해 하는 중년을 위한 음악 여행.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권태균 전 신구대 교수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노래들을 찾아 배경이 된 장소를 여행하면서 노랫말을 음미하고 그 안에 담긴 스토리를 유려한 글과 사진으로 풀어낸다. 책은 두 교수가 함께 여행하면서 음미한 노래를 모으고 각각의 노래가 탄생한 장소에 관한 얘기를 곁들여 엮었다. 〈RHK·1만4000원〉

▲하프 브라더=과학자 부모를 둔 열세

살 소년인 부모의 실험대상인 아기 침팬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성장소설. 소년과 침팬지의 유쾌하고 엉뚱한 소동들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답다는 것의 기준, 모든 선택에 따르는 책임감의 중요성과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 등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까지도 담아 내며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한다.

〈문학수첩·1만3000원〉

▲광고하지 마라=텔레비전이나 종합 일간지에 거액의 광고를 하면 무조건 물건이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막대한 예산으로 많은 광고 채널을 확보하는 게 PR 활동의 기본이라는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화한 매체 환경에 대한 통찰 없이, 그저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PR을 해서는 안 된다. 책은 1000명부터 10억 명까지 인구 규모별 PR전략을 짜는 법을 공개한다. 〈북카라반·1만3000원〉



〈복텐트·1만1000원〉

▲잘하는 게 서로 달라=스스로에게 용기를 줄때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책.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 만들기를 잘하는 친구, 정리정돈을 잘하는 친구 모두가 소중한 쓸모 있는 재능이다. 〈좋은꿈·1만원〉

▲모르는 게 약?=재미있는 약 이야기부터 신약과 백신의 개발, 약의 부작용, 건강보험 등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모두를 담았다. 약을 바로 알고 제대로 먹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약사님이 들려주는 약 이야기를 통해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열다·1만원〉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는 선천적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열 살 소년 어거스트를 앞장서서 괴롭히던 '못된 아이' 줄리안의 이야기. 줄리안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어거스트와는 또 다른 내면의 어려움을 가진 아이 줄리안이 진정한 아름다운 아이로 거듭나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책과공나무·1만원〉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철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철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록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010-5536-0382

광주·전남 프리모 남가발

대산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